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12월 5일

CUOMO 주지사, 진주만 기념일에 즈음하여 반기 계양을 지시

Andrew M. Cuomo 지사는 12월 7일 일요일의 진주만 기념일에 즈음하여 주정부 건물에 반기를 계양할 것을 오늘 지시하였습니다. 진주만 공격시 뉴욕주 출신 40명을 포함해 무려 2,400여명의 미국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진주만을 황폐화시킨 공격 제73주년을 맞이하여 본인은 모든 뉴욕커들과 함께 잠시 묵념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진주만 사태는 우리나라 역사의 코스를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진 분들을 계속 기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그날 돌아가신 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현재 복무하고 계신 용감한 남녀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진주만 기습 공격은 1941년 12월 7일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후에 미국의 어떤 다른 주보다 더 많은 약 170만명의 뉴욕커들이 계속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복무하였습니다. 진주만 기념일은 모든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을 기리지만 특히 그 치명적인 날 복무 중에 목숨을 잃은 해병대, 해군, 육군, 공군 장병과 민간인들을 기립니다.

작전 중 또는 전투 지역에서 사망한 뉴욕주 자체의 장병들뿐만 아니라 뉴욕주 주둔 장병들도 기리기 위해 이번 일요일 모든 주정부 건물에 반기가 계양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